

1907년 1월에 그 보다 몇 년 앞서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다. 수천명이 회개에 이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 시작부터 남녀 신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한국과 중국 전역으로 흩어졌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몰락했고 신실한 성도들은 망명자가 되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다. 이제, 기독교 평양이 전복된 지 약 60년이 흘러 하나님은 각 국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흔들어 평양과 북한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다. 나는 이사야서 62장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약속이 지금 이 시간 평양의 회복이라는 복된 소망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주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스스로의 맹세로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다. 그분은 그 사랑을 감추지 않으신다. 그는 잠잠치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언제까지인가? 예루살렘의 의가 빛과 같이 빛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날까지이다.

**2절)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모든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평양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은 압제, 거짓말, 조종, 죽음을 볼 것이다. 공의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영광이 아닌 수치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이러한 것들이 잊혀질 날이 올 것이란 것이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평양은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의 도시가 될 것이다.**

**4-5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헐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진실로 “버리운”, “황무지”란 말은 북한에 가장 적절한 단어이다. 이 아름다운 약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가. 하나님이 평양과 북한 땅을 기뻐하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6-7절) 예루살렘이여 네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히 앉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들처럼,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며, 이 놀라운 약속의 한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숫군이다. 우리 자신이 쉬지 말 것은 물론이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실 때 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명확한 명령이, 이 약속이 완성될 때에 대한 매우 명확한 징후와 동시에 제시돼 있다. 세상에서 평양과 북한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 일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이 날은 오고 있다. 우리 기대보다 먼저 올 것이고, 그의 말씀은 헛되지 돌아오지 않는다.

**8-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약속과 함께 도전을 가지고 계신다. 도전은 그 오른손과 능력의 팔이 승리할 것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귀한 아들, 그분은 이미 지옥의 문을 없애셨고 모든 악과 죽음에 승리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평양을 그의 면류관으로 취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의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는 더 이상 이 땅의 억눌린 자들이 그들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들에 팔아넘길 양념, 인삼, 고급 포도주 및 기타 진미를 생산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즐길 것이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10절에서 다시 우리를 향한 명령이 제시된다.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무슨 뜻인가? 나는 이 명령이 기도에 대한 부르심과 짝을 이룬다고 믿는다. 준비를 명하신다. 북한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릴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날에 준비돼 있을까? 웅덩이와 구덩이로 가득한 부서진 대로는 북한과 북한 사람들과 도시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이다. 돌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실패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이다.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문화, 사회, 심지어 언어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 역사로 인해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우리는 일을 망칠 것이고 놀라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분열은 북한의 길에 있는 중요한 틈이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

**11-12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상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신다. 이미 그분은 사람들이 이 성읍을 찾는 것을 보신다. 이 성읍은 재건되어서 그 백성으로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이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케 할 것이다. 북한의 비참한 압제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진정한 왕을 알고 그의 구속을 기뻐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 없는 깊은 사랑과 기쁨으로, 그들은 이 세상의 구석구석 압제받는 어두운 곳에 말씀을 들고 갈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한 부분을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즐기고 있는 파숫군으로 남겠습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